

TIGER 글로벌시액티브

(466950)



개인연금



퇴직연금

TIGER ETF

2024년 8월 30일 기준

기초지수

Indxx Artificial Intelligence and Big Data 지수(Net Total Return)는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관련 AI 개발 및 서비스, AI 하드웨어, AI 소프트웨어, 양자컴퓨터 기업으로 구성된 지수

기본정보

최초설정일	2023년 10월 10일
기초자산	해외주식
순자산총액	136,790백만원
1주당순자산(NAV)	13,943.97원
총보수율(TER)	연 0.79 %
분배금지준일	매 1,4,7,10월의 마지막 영업일, 회계기간 종료일
집합투자업자(운용)	미래에셋자산운용
신탁업자(자산보관)	한국씨티은행
일반사무관리회사	한국펀드파트너스
AP/LP	홈페이지(www.tigeretf.com) 참조

거래정보

상장거래소	KRX 유가증권시장
종목명	TIGER 글로벌시액티브
상장코드	466950
블룸버그 티커 (펀드)	466950 KS
블룸버그 티커 (기초지수)	-
결제일	T+2
설정단위(CU)	10,000주
거래단위	1주
일거래량(최근3개월 일평균)	143,467주
일거래대금(최근3개월 일평균)	2,159백만원

분배현황 (최근 2년)

분배금지급일	주당분배율(%)	주당분배금(원)
-	-	0

투자 포인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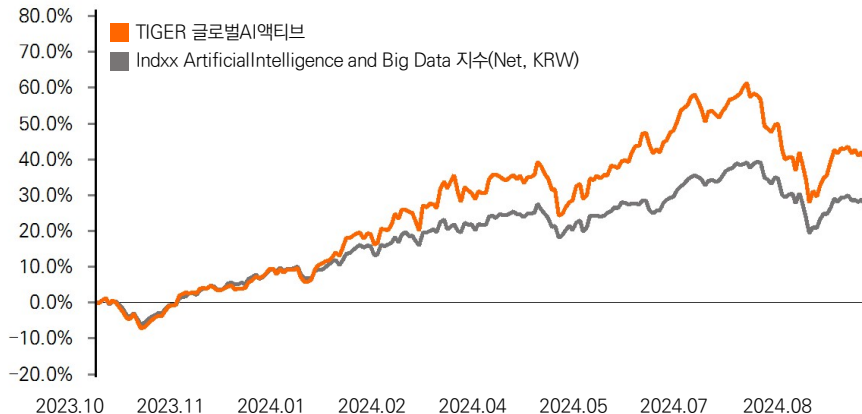
1. AI 산업의 강력한 성장성과 높은 활용도
2. 글로벌 AI 리더 기업에 투자하는 방법
3. 시장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액티브 ETF

운용성과 (%)

구분	1M	3M	6M	1Y	3Y	YTD	설정이후	변동성
TIGER 글로벌시액티브	-0.83	-5.35	10.33	-	-	27.63	39.45	23.52
Indxx ArtificialIntelligence	-2.24	-0.86	6.68	-	-	16.36	29.86	16.65

* 위의 수익률 정보 및 아래 그래프는 운용기간 중 발생한 분배금 재투자를 가정하였음.
변동성 : 최근 1년간 일간수익률 기준 표준편차 연환산 (운용기간 1년 이내인 경우 전체 운용일수 기준)

성과 그래프



*상기 ETF그래프는 분배금을 제외한 NAV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업종비중

No.	업종	비중(%)
1	정보 기술	59.45
2	커뮤니케이션서비스	10.69
3	자유소비재	9.75
4	산업재	9.47
5	유틸리티	4.10
6	헬스케어	3.07

상위 10종목

No.	종목명	업종	비중(%)
1	NVIDIA Corp		10.95
2	Taiwan Semiconduct		4.71
3	Broadcom Inc		4.37
4	Microsoft Corp		4.29
5	Tencent Holdings Lt		3.67
6	Meta Platforms Inc		3.65
7	Apple Inc		3.63
8	Alibaba Group Holdin		3.45
9	Alphabet Inc		3.38
10	Amazon.com Inc		3.30

* 상기 업종비중은 GICS 대분류 기준입니다.

* 포트폴리오 정보는 PDF 구성내역에 기초한 것으로 실제 보유내역과 다를 수 있습니다.

※ ETF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운용결과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이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며, 원본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ETF를 취득하기 전에 (투자대상, 환매방법 및 보수 등에 관하여)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 과거의 운용실적이 미래의 운용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미래에셋TIGER글로벌시액티브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TIGER 글로벌시액티브

(466950)  개인연금  퇴직연금**TIGER ETF**

2024년 8월 31일 기준

1. 운용 경과 및 성과분석

TIGER 글로벌시액티브 ETF는 8월 한달 동안 0.5% 상승하였습니다. 8월 초에는 7월 말에 있었던 일본은행의 정책 변경 속 미국 고용 지표 부진에 따른 경기 침체 우려가 맞물리면서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일시에 확대되었습니다. 그러나 경기 침체를 우려하기에는 경기 여건이 여전히 양호한 가운데 파월 의장이 금리 인하 개시를 사실상 선언하였고, 이어 일본은행도 정책 불확실성 제거를 위해 노력하면서 주식시장은 빠르게 회복하는 양상을 보이면서 변동성은 완화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었던 일본 주식시장에서는 급락을 매수 기회로 활용하기도 하였습니다.

2. 포트폴리오 변경상황

당 ETF의 포트폴리오는 그동안 AI 수혜주로 반도체 등 하드웨어 기업들을 주로 포함하여 이들 기업의 비중을 높게 유지해 왔습니다. 그러나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상승폭이 컸던 종목들에 대한 차익실현 욕구가 커지고, 반도체 사이클 피크에 대한 우려가 제기 됨에 따라 반도체 등 하드웨어 기업들에 대한 비중을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엔비디아의 실적이 견조하더라도 차익 이실현에 대한 투자자들의 욕구가 크다고 판단되어 실적 발표 전 비중을 축소하여 대응하였습니다. 대신에 미국 반도체 이외의 기업 중 상승 여력이 는 기업들을 편입하고 있습니다.

3. 익월 운용 계획

9월에는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 결정, 미국 대선 후보 간의 토론회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또한 올해 상승폭이 컸던 반도체 기업들에 대한 피크 우려가 주가 상승을 제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통화 정책의 경우 금융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를 이미 충분히 반영하고 있습니다. 연내 100bp 인하까지 예상되고 있는 상황으로 9월 FOMC에서 베이비 컷(25bp 인하)이 아닌 빅 컷 (50bp인하)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장의 미국 경기 침체 발생 가능성은 낮고, 현재 금융시장 환경이 안정적인 상황에서 빅 컷은 오히려 경기에 대한 우려를 시사할 수 있어 급격한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경계감을 가지고 대응할 계획입니다.

한편, 미국 대선 후보 토론의 경우 양당 후보자 간 지지율 격차가 크지 않다는 점에서 정치적 불확실성이 높아질 수 있고, 이는 주식시장 상승의 상단을 제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과거 미국 주식시장은 대선이 가까워지는 9월과 10월에 정치적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부진한 흐름을 보이는 경향성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기업들이 어떤 후보가 당선이 되느냐에 따라 경영전략이 달라질 수 있어 대선 전에 투자 집행 등을 보수적으로 운용하고 있는 것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에 당 ETF는 미국 반도체 기업들에 대한 적절한 차익실현을 고려하되, 매크로 환경에 관해서는 통화정책도 중요하지만, 미국 대선의 풍향에 대해 보다 예의주시 하며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